

한국신 3개·4관왕...황선우, 4번째 ‘전국체전 MVP’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선 ‘아시아신’
2017년 중국 쑤양보다 0.01초 빨라
5차례 수상 박태환 최다 기록에 성공

한국 신기록 3개를 세우고 금메달 4개를 목에 건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도 거머쥐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기자단 투표에서 황선우가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19세 이하부(고등부)로 축소해서 열린 2021년 전국체전에서 5관왕에 올라 처음 MVP를 수상한 황선우는 2022년(4관왕), 2023년(5관왕)에도 MVP로 선정됐다.
사상 처음 전국체전 3년 연속 MVP에 오



황선우가 지난 21일 전국체전 수영 경연 개인혼영 200m와 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한 뒤 인터뷰 중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른 그는 지난해에는 5관왕을 달성하고도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에게 트로피를 내줬다. 올해는 부산을 들쭉이게 한 역영으로 통산 4번째 MVP 트로피를 받았다.
전국체전 MVP 최다 수상 기록은 2005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7년 5번 트로피를 든 ‘마린보이’ 박태환이 보유하고 있다.
부산에서 황선우는 19일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강원팀 멤버로 나서서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20일에는 자신의 주 종목 자유형 200m에서 1분43초92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자신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1분44초40의 한국 기록은 물론 2017년 쑤양(중국)이 세운 아시아 기록(1분44초39)마저 넘어선 대단한 기록이다.

한국신기록 행진은 이어졌다.
황선우는 21일에는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7초66으로,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21년 제102회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 1분58초04를 0.38초 당겼다. 같은 날 남자 계영 400m에서는 강원팀 첫 영자로 출전해 3분11초52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했다. 종전 기록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지유찬, 이호준, 김지훈, 황선우가 은메달을 딸 때 작성한 3분12초96이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2024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준결승 9위(1분45초92)에 그쳐 결승 무대에도 서지 못한 황선우는 2025년 마지막 대회에서 행복한 순간을 누렸고 반짝이는 MVP 트로피도 받았다. 연합뉴스



김효주-최혜진 조,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첫날 스웨덴 제압 23일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첫째날 경기에서 김효주가 샷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조별리그 B조 1차전 스웨덴을 상대로 김효주-최혜진 조가 포볼 경기에서 3홀 차 승리를 따내 승점 1.5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김혜성, 꿈의 무대 설렘 안고 비행기 탔다

다저스-토론토, 25일 월드시리즈 시작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멀티 플레이어 김혜성(26)이 ‘꿈의 무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 구단은 23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전지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행 전용기에 탑승하는 소속 팀 선수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무키 베츠, 클레이턴 커쇼 등이 웃으며 전용기에 올랐다. 김혜성은 휴

대전화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활짝 웃는 표정으로 전용기 계단을 올라갔다.
다저스는 아직 WS 출전 로스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김혜성이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WS는 1차전은 25일 오전 9시 토론토의 홈구장인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다.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로 대망의 WS 무대를 밟은 선수는 박찬호, 김병현, 류현진, 최지민 4명이다. 연합뉴스

‘폰세 vs 최원태’ PO 5차전 선발

삼성 라이온즈와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1홈런) 1볼넷 8탈삼진 6실점(5자책점)으로 체면을 구겼던 한화 이글스의 코디 폰

세가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 PO 5차전 선발로 나선다.
삼성은 SSG 랜더스와 준PO 1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에 이어 한화와 PO 2차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또 역투한 최원태가 선발 출격한다. 연합뉴스



K-Military Festival 제75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2025. 10. 31.(금) ~ 11. 02.(일) / 춘천 수변공원 일대 (베어스호텔 맞은편)

10. 31.(FR) 군악연주회 (알리, 조패즈 출연), 드론 라이트 쇼

11. 01.(SAT) 춘천대첩 전승기념 및 고(故) 심일 소령 추모행사, 참전용사 위로연, 축하공연 (합창단, 국악단), 의장대, 태권도 시범

11. 02.(SUN) '춘천대첩72시간' 영화 상영, 최신 군장비 탑승 및 헬기 비행 체험, 다양한 전시 등 시민 참여 부스 운영

주최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주관

육군 제2군단
Republic of Korea Army 2nd Division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